

기아 EV9, 유럽 친환경차 격전지서 극찬받았다

기아 EV9이 유럽 친환경차 격전지 영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기아는 11일 "지난 8일(현지시각) E V9이 '2024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국 올해의 차는 매해 탑기어(Top Gear), 카(Car), 오토카(Autocar), 왓카(What Car), 오토트레이더(Auto Trader)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단 30명이 12개월 이내 출시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심사와 투표를 진행해 선정된다.

EV9은 이번 어워드 1차 심사를 통해 대형 크로스오버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됐으며 각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에 오른 ▲현대차 아이오닉5(패밀리카 부문) ▲르노 클리오(소형차 부문) ▲볼보 EX30(소형 크로스오버 부문) ▲피스커 오션(중형 크로스오버 부문) ▲BMW i5(임원진을 위한 차 부문) ▲혼다 시빅 타입 R(고성능차 부문) 등의 경쟁한 차들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영국은 등록 자동차 중 전동화에 기반한 친환경차의 비율이 36.5%(지난해

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유럽 내 어떤 곳보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에 관심이 뜨거운 국가로 EV9이 이런 영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다.

영국 올해의 차 어워드 공동 회장 존 칼렌(John Challen)은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 중 거의 절반이 EV9을 2024 영국 올해의 차로 선택했을만큼 매력과 신뢰감이 느껴지는 차"라며 "EV9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안요소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도가 좋아 프리미엄 SUV 운전자들도 유인할 수

영국 올해의 차 최종 선정...시장 진출 두달만에 쾌거 디자인·인테리어·성능·실용성 등 모든 면 경쟁력 우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카와우(Carwow) 편집장 폴 바커는 "EV9은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차로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라고 극찬했다.

기아 관계자는 "EV9이 올해 1월 영국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영국 올해의 차를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EV9

이 혁신적인 디자인, 우수한 실내공간,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 등 높은 상품성으로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영국에서 전동화 패러다임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EV9은 '2024 여성 세계 올해의 차(2024 Women's Worldwide Car of the Year, WWCOTY)'를 수상하며 전세계 여성들이 뽑은 최고의 차에도 선정

됐다. 여성 세계 올해의 차는 52개국 여성 자동차 기자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안전성, 편의성, 기술력, 가성비 등을 평가해 최고의 모델을 선정한다.

EV9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다목적 전기차", "뛰어난 공기 역학과 첨단 기술, 가족 친화적인 인테리어와 신속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SUV"라는 호평을 받으며 63개 경쟁모델들을 제치고 세계 여성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한편, EV9은 기아의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3열 대형 SUV

▲탑승객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2열 시트 옵션 ▲99.8kWh 대용량 배터리 탑재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 V2L 등 혁신적인 전동화 사양은 물론 ▲기아 커넥트 스토어·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SDV)로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강조했다.

EV9은 이번 수상 이전에도 ▲2024 북미 올해의 차(North America Car Of The Year) ▲2024 유럽 올해의 차(EU Car Of The Year) ▲2024 독일 올해의 차(2024 German Car Of The Year) '럭셔리(Luxury)' 부문 선정 ▲2023 뉴스위크 오토 어워즈(2023 Newsweek Autos Awards) '최고의 프리미엄 SUV(Best Premium SUV)' 및 '최고의 SUV 인테리어(Best SUV Interior)' 부문 선정 ▲아우토 빌트(Auto Bild) 2023 골드 스티어링 휠 어워드(2023 Golden Steering Wheel Awards) '패밀리카(Family Cars)' 부문 수상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 주관 2023 탑기어 어워드 '올해의 패밀리카' 선정 등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자동차 상들을 휩쓸는 쾌거를 달성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임채만 기자



기아 EV9이 탑기어(TopGear), 카(Car), 오토카(Autocar), 왓카(What Car), 오토트레이더(Auto Trader)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단 30명이 12개월 이내 출시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심사와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24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에 최종 선정됐다. <기아 제공>

BMW, 韓 수입 전기차시장 '나홀로 질주'

지난달 532대 판매...벤츠 따돌리고 두달 연속 1위

완성차 브랜드 BMW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갖췄고, 올해 2월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 가운데 BMW 전기차 비중이 2인자였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BMW 전기차 11개 모델의 전체 판매량은 532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전기차 판매량 344대보다 54.7% 급증한 것이자 지난 2월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량 1천74대가운데 49.5%에 이르는 수치다.

국내 전기차 판매 2위인 메르세데스-벤츠(309대)보다 223대 더 팔렸다.

이로써 BMW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벤츠를 따돌리고 수입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2월 수입 전기차 판매량 '톱10'에도 BMW 차종은 4개, 벤츠 차종은 3개가 각각 포함됐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전기차 8천225대를 판 BMW는 벤츠(9천184대)에 이은 수입 전기차 판매에 있어 '2인자'였지만, 새해 들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보인 셈이다.

업계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BMW 성장세에 대해 브랜드 인지도에다 주행 성능이 개선된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트림별 다양한 가격대 모델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BMW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 실적은 전기차 보조금 최대지급액 기준을 5천500만원으로 설정한 정부의 '보조금 개편안' 영향도 사실상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업계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수입 전기차 중 판매량 최다를 기록한 차종은 BMW iX3(206대)로, 해당 모델 가격은 8천200만원으로,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판매가상한(5천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BMW 전기차 11개 모델의 평균 가격도 1억3천만 원대에 달했다.

전기차 모델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BMW iX1 xDrive30(6천950만원)의 지난달 판매량은 단 1대에 불과했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의 경우 낮은 가격이 바로 판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지난달 국내에서 174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현대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 도입

기존 중고 반납 소비자 신제품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 구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

출고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가령,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아이오닉 5 상품개선 모델)를 출고차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 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제네시스 EV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

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 원을 할인 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km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줄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상가 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형가능 (룸, 노래홀, 홀덱)</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기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	